

# 盛況이룬 綜合學術祭展

## 2千餘名參加코 70餘論文 발표

### 在歐科學者 祖國發展相에 關心度 높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閔寬植)와 在歐韓國科學技術者聯合會(회장·閔宣植) 공동주최로 열렸던 제 6 차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가 4월 19일 간담회 및 綜合評價會를 끝으로 그막을 내렸다.

4월 9일~1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綜合學術大會에는 ①數學·物理學·天文學·地質學 ②化學·化工·食品工學 ③金屬·材料工學 ④機械·航空·造船工學 ⑤電子·電氣工學 ⑥에너지·環境海洋·建築·土木工學 ⑦國民生活科學 등 7개 分科에서 총 70篇(국의 34·국내 36)의 연구논문이 延世大 장기원 기념관과 同경영학 교실단에서 발표되었다.

불란서·영국·독일·스위스 등 歐羅巴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在歐韓國人科學技術者 47명과 그들의 가족 19명 그리고 國內科學技術界人士 2千 65명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었던 이번 매머드 綜合學術大會는 알차고 수준 높은 學術論文發表 및 技術情報交換으로 國內外科學技術者間의 相互紐帶 강화는 물론 국내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促進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번 學術大會에서 發表된 金屬材料工學 分科 유한중씨(西獨 Karlsruhe 大學校)의 「Calculation of the residual stresses」, 機械·航空·造船工學 分科 김창열씨(英國 Swansea 大學校)의 「유한 요소법의 연구 방향」, 電子·電氣工學 分科 박규배씨(延世大工大)의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현황과 전망」 및 西獨 BBC會社 責任研究員 김창덕씨의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기계」 등 主題는 國內外 科學技術界人士들의 큰 關心

을 불러 일으켰다.

더우기 이들 在歐科學技術者들에게 學術大會 期間 동안 KIST·韓國科學院·原子力研究所·흥능기계·서울大·高大·延大 등 國內研究機關 및 教育機關 見學과 大德專門研究團地·昌原工團·浦項綜合製鐵·現代造船 등의 워크샵을 겸한 產業視察을 통해 祖國의 發展相을 비롯 國內科學技術實態를 직접 돌아보고 相互協調支援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토록한 것은 時機적절한 措置로서 큰 意義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政府에서 적극 전개하고 있는 全國民의 科學化運動과 때를 같이하여 이번 學術大會 스케줄에 「國民生活科學分科」를 신설, 英國·西獨·프랑스 등 先進歐州地域 國民들의 科學의인 生活觀과 實際는 어떤 것인가를 分析 討議함으로써 全國民의 科學化運動 展開에 많은 參考資料를 안겨주었다.

특히 이번 綜合學術大會를 通하여 括目할 程度로 부각된 현상의 하나는 在外科學技術者들의 祖國의 發展相과 現實에 쏟는 關心度라고 하겠다.

國力の 伸張과 거듭되는 綜合學術大會가 가져다준 값진 所産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參與度가 높고 따라서 높은 關心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高級頭腦의 需要急增이 豫想되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業績과 體驗을 國家發展에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는 길을 계속 追求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質的 및 量的으로 보다 次元 높은 科學立國과 技術自立을 促進할 수 있는 方案이 創出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